

**[주제발표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정에 부쳐: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의의와 과제**  
- 이 정 욱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공통과정으로 교육부는 유치원교육과정으로,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과정으로 고시한다. 본 발표자는 누리과정을 국가수준 교육과정<sup>1)</sup>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 교육과정/보육과정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주제 발표를 하고자 한다.

## 1.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체제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학급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체제의 권한과 책임, 구조와 과정,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이상주, 1974). 예를 들어,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는 학습자와 가장 거리가 먼 체제로서 전체 사회의 요구와 이념에 따라 일반적인 교육목적, 내용영역을 규정하지만 학급수준 교육과정은 학습자와 가장 가까운 체제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선정한다(김대현, 김석우, 2013).

국가교육과정 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바탕으로 교육의 목적, 내용과 방법, 교육과정 운영 기준 및 기본 지침을 담고 있는 법적 문서를 의미한

1) 누리과정의 영문명이 Nuri curriculum이며, 교육과정 개발이론은 개발의 수준에 따라 국가수준부터 학급수준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보육과정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이론적 구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누리과정을 교육과정으로 칭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국가교육과정은 동일한 의미로 문맥에 따라 교체 사용한다.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질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급, 학교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충족시키므로 학생들이 진학 또는 전학했을 때도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김대현, 김석우, 2013).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너무 상세하게 규정되면 각 지역이나 학교,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 주장이 받아들여져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을 양적으로 간소화하고 질적으로 적정화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강현석, 이대일, 유제순, 이자현, 2006).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육과정 대강화가 무조건 그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 그 적정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현석 외(2006)는 교육과정 대강화의 방안으로 국가 기준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달성하고자 하는 최소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할 것, 질적 적정성에 초점을 둘 것,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환경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할 것, 교육과정 문서를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안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 기준을 엄선하여 명시하고, 공통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사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의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이원화되어 왔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 수준의 공통기준을 지

침으로 삼아 기관별 특성을 가미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랫동안 논의만 되었으나 용두사미로 끝나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통합의 요소 중의 하나인 교육과정의 통합을 이루었다. 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과정만이라도 통합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에 다니든지 양질의 공통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생애 초기 출발선 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실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출발점 평등의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공통된 국가교육과정이 실행되므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별로 교육과정의 특색이 있을지라도 국가공통기준은 유아들의 배움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부여해 준다.

넷째, 국가공통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용이해진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오전 특별활동이 감소되고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이 강화되었다(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다섯째, 모든 만 3-5세 유아가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다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원리인 보편성을 지니게 되어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게 되었다(이정옥, 2017).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관리·운영·지원하는 교육으로 보편성, 무상성, 의무성(책무성)이 요구되는 공교육의 요건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보편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3.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과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결정으로 실시되었기에 교육과정 개발의 시발자(initiator)는 정부이며, 교과부, 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학계, 교원, 전문직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개발되어 시범적용 없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과 2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3-5세에 해당되는 공통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출하여 연령별 특성에 따라 구성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공통교육과정의 구안이란 점이 주된 목표였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험난한 논의를 거치며 개발되었고 향후 보다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해 그동안 여러 연구들(박순경, 2012; 박창현, 양미선, 2017;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윤은주, 2015; 이경화, 2016; 이승미, 2015; 조부경, 김경은, 2017; 최운정, 2014)에서 제기되었던 비판점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누리과정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판점 분석

범주	비판점	
개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전격적 정책수립 ▶ 단시간 동안 개정</li> <li>■ 단기간의 개발일정 ▶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어려움</li> <li>■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아닌 재정지원 정책으로서의 접근</li> </ul>	
고시문의 구성 체계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정체성 모호: 교육과정 VS 보육과정 VS 교육·보육과정</li> <li>■ 교육과정의 성격 누락</li> </ul>
	총론 문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교 급의 교육과정 총론 체제와의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li> <li>■ 교육과정 지원이 제시되지 않음</li> </ul> </li> </ul>



범주	비판점															
영역별 구성 체계	<p>■ 5개 영역으로 제시 ▶ ‘교과’ 중심의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음</p> <table border="1" data-bbox="529 566 1259 633"> <tr> <th>누리과정</th> <th>초등교육과정</th> </tr> <tr> <td>영역중심</td> <td>교과중심</td> </tr> </table> <p>■ 교육목표 및 내용 포착의 어려움 (예: ‘수학 관련 내용’ 교육목표에 반영 ▶ 영역명: 자연탐구)</p> <p>■ 사용하는 용어, 자칭하는바가 명확하지 않음 (예: 누리과정의 영역 ≠ 초등교육과정의 영역의 의미는 상이)</p> <table border="1" data-bbox="529 792 1259 1075"> <tr> <th>누리과정</th> <th>초등교육과정(예: 국어) ▶ 교과마다 상이</th> <th>통합교과</th> </tr> <tr> <td>1단계: 영역 2단계: 내용범주 3단계: 내용 4단계: 세부내용</td> <td>1단계: 교과(국어) 2단계: 내용 영역과 기준/내용체계 3단계: 학년군별 세부내용/학년군 성취기준 4단계: 영역 성취기준 5단계: 내용 성취기준</td> <td>1단계: 교과 2단계: 주제 성취기준</td> </tr> </table> <p>■ 연령별 구성: 연령별 내용 구성 근거의 미약</p> <p>■ 세부내용: 내용의 연령별 구분 모호</p> <table border="1" data-bbox="529 1182 1259 1249"> <tr> <th>3세</th> <th>4세</th> </tr> <tr> <td>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td> <td>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td> </tr> </table> <p>■ 무리한 연령별 내용 세분화 ▶ 국가중심교육과정 중심의 획일화 야기</p>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	영역중심	교과중심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예: 국어) ▶ 교과마다 상이	통합교과	1단계: 영역 2단계: 내용범주 3단계: 내용 4단계: 세부내용	1단계: 교과(국어) 2단계: 내용 영역과 기준/내용체계 3단계: 학년군별 세부내용/학년군 성취기준 4단계: 영역 성취기준 5단계: 내용 성취기준	1단계: 교과 2단계: 주제 성취기준	3세	4세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															
영역중심	교과중심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예: 국어) ▶ 교과마다 상이	통합교과														
1단계: 영역 2단계: 내용범주 3단계: 내용 4단계: 세부내용	1단계: 교과(국어) 2단계: 내용 영역과 기준/내용체계 3단계: 학년군별 세부내용/학년군 성취기준 4단계: 영역 성취기준 5단계: 내용 성취기준	1단계: 교과 2단계: 주제 성취기준														
3세	4세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내용 진술 방식	<p>■ 누리과정 내용 진술에 대한 비판</p> <table border="1" data-bbox="529 1395 1259 1798"> <tr> <td></td> <th>박순경(2012)</th> <th>박창현, 이경화, 이민희(2017) 등</th> </tr> <tr> <th>내용</th> <td>지나치게 간략 (예: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td> <td rowspan="2"> <p>■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 범주(20)-내용(174)-세부 내용(369)</p> <p>■ 세부내용 = 성취해야 할 교육내용 오인 ▶ 유아] 자유놀이 내용 구조화</p> </td> </tr> <tr> <th>세부 내용</th> <td>‘안다’, ‘해본다’ 등의 개괄적 진술</td> </tr> <tr> <td colspan="3"> <p>■ 학습범위 가늠이 어려움</p> <p>■ 누리과정에서의 ‘도착점 행동’, 1학년에서의 ‘출발점 행동’ 파악이 어려움</p> </td> </tr> </table>			박순경(2012)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2017) 등	내용	지나치게 간략 (예: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p>■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 범주(20)-내용(174)-세부 내용(369)</p> <p>■ 세부내용 = 성취해야 할 교육내용 오인 ▶ 유아] 자유놀이 내용 구조화</p>	세부 내용	‘안다’, ‘해본다’ 등의 개괄적 진술	<p>■ 학습범위 가늠이 어려움</p> <p>■ 누리과정에서의 ‘도착점 행동’, 1학년에서의 ‘출발점 행동’ 파악이 어려움</p>					
	박순경(2012)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2017) 등														
내용	지나치게 간략 (예: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p>■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 범주(20)-내용(174)-세부 내용(369)</p> <p>■ 세부내용 = 성취해야 할 교육내용 오인 ▶ 유아] 자유놀이 내용 구조화</p>														
세부 내용	‘안다’, ‘해본다’ 등의 개괄적 진술															
<p>■ 학습범위 가늠이 어려움</p> <p>■ 누리과정에서의 ‘도착점 행동’, 1학년에서의 ‘출발점 행동’ 파악이 어려움</p>																

범주	비판점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내용영역, 활동유형, 흥미영역, 생활주제의 복잡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용 지도서 의존도 증가</li> </ul> </li> </ul>				
	유아교육과정 (주제중심통합교육)				초등교육과정 (교과중심+주제중심)
	누리과정 (고시문)	교사용 지도서	하루일과	환경구성	교육과정/교과서/ 일과시간표
	영역중심	주제중심	활동중심	교과중심	
	교과가 은폐				교과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li> <li>■ 각종 평가정책(기관 평가, 교원평가) ▶ 누리과정 획일적 실행</li> </ul>					

누리과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비판점을 중심으로 중요한 몇 가지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합리적인 개정 절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제정은 단기간의 개발일정으로 유아교육계 내의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하고 정부의 전격적인 정책적 결정으로 실시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정은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개정 절차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창언(2018)에 의하면,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을 현장의 여론, 전문가 집단, 적용 실태 조사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개정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교육부에서 개정이나 운영에 대한 보완 여부를 결정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으면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과정 개정 단계는 개정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제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며,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대표성을 지닌 관련 주체가 가능한 많이 참여하여 현행 교

육과정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따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제대로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박창언, 2018). 그리고 특정 철학이나 이념, 세력의 입장이 우세하지 않게 함으로써 중국적으로 합리적인 개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 작업에는 유아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사, 초등교육 전문가, 교육/보육 관료집단, 교육/보육 행정가, 학부모 등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참여 수준 등을 찾아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된 개정안은 시범 적용의 과정을 거쳐서 수정·보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개정의 방향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으로 ‘놀이 중심, 유아중심’을 제시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교육과정이 교사가 계획한 수업계획서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유아의 자유놀이가 중심이 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놀이와 유아 중심은 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이므로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에 반대할 유아교육자는 없을 것이며, 그동안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강조해 온 바이다. 그렇다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한 ‘놀이 중심, 유아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전 교육과정들에서 강조되어 온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개정 방향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놀이 중심과 유아 중심이란 용어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놀이는 자유놀이부터 교사 계획 놀이까지 그 범위가 다양한데 왜 자유놀이 중심이어야 하는가, 자유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놀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play based learning)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아는 어떻게 배우는가? 놀이만이 유아에게 배우는 유일한 경로인가, 교사 계획에 의한 의도적 학습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등을 숙고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제정 및 개정)은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놀이와 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놀이 중심과 유아 중심이 교육현장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원인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의 실행이 부적절했기 때문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보다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놀이와 유아 중심의 실천을 위해 보다 지원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요구된다면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도 유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아중심을 실천하고 놀이 중심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사례들이 발표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보다 그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누리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개발하면서 그 성격을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으로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고 「공통 과정」이란 용어로 마무리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굳이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개발 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교육이념과 보육이념이 가진 차이를 숙의에 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본 발표자는 교육과정으로 성격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만 5세 누리과정 제정 당시의 공청회부터 시작하여 이후 누리과정의 재정과 관련된 논쟁 과정에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일 3~5시간(4~5시간)의 기본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해왔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영문명칭도 「Nuri Curriculum」

이란 점에 근거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0-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시문서의 서두에서 성격을 명시할 때 “유치원의 교육과정,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기술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길러내고 싶은 인간상이므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가 다른 학교 급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달라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4) 연령별 교육과정의 적절성 검토

5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1차 표준보육과정 이후로 유아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왔으나 누리과정에 와서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2009년에 발표되었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미래지향적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담겨 있었던 ‘수준별 교육과정을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개편’안이라 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09년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권옥자, 문무경 외, 2010) 결과에 따르면,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이 I, II, 공통수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준은 연령이 아니라 발달적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한 교육 내용 수준을 의미하지만 현장에서는 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I수준은 3세, 공통수준은 4세, II수준은 5세 정도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계 내의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하고 정부의 전격적인 정책적 결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전

환되었다. 연령별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교육내용의 연령별 세분화는 이후 연령별 내용구성의 근거 미약(조부경, 김경은, 2017), 과잉 계열화의 논란과 함께 교육활동에서 구분되기 어렵다는 실효성의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물론 이러한 지적은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준 구분의 모호성’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었다(권옥자, 문무경 외, 2010). 이는 일정한 경로를 거치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학습과정을 그 기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인위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한계점일 수 있다.

따라서 수준별과 연령별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비판을 고려했을 때 누리과정 개정에서는 교육내용을 수준이나 연령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만 5세까지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최소한의 공통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정욱, 2017a). 국가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이 보편교육으로 출발점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유아가 경험하고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개별 유아의 발달 및 학습과정에 맞추어서 만 5세 유아교육 종료 시점까지 도달하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 교육내용의 적정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주요 학습영역을 가리키는 동시에, 해당 영역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교사의 측면에서는 교육목표가 되고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학습목표의 성격을 지닌다(김대현, 김석우, 2013).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너무 많은 것을 상세하게 담기 보다는 필수적인 기준으로 최소화하는 교육과정 대강화가 전반적인 추세이다

현행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이 과다하고 너무 상세하여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박창현 외, 2017; 조부경, 김경은, 2017). 반면에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에서는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할 때 구체적인 안내 및 지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권옥자, 문무경 외, 2010; 박순경, 2012).

이같이 상반된 의견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양적 간소화만이 아니라 질적 적정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주목하게 하고, 유아기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핵심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므로 숙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강현석(2016)은 기준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정화는 그저 단순히 내용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습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기의 성취기준 제시에 대해 Bredekamp(2004)는 개별 유아의 발달과 학습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유아에게 적용 가능한 목표 설정이 어렵고, 학습 결과의 명시는 교육과정을 그 결과에 제한시켜 부적절한 지도가 유발될 수 있어 전인교육이 간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edekamp(2004)는 유아를 위한 성취기준의 마련이 잠재적 이점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즉, 성취기준은 교사에게 유아의 학습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교육과정 및 교수 계획을 위한 가치 있고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성취기준은 교사에게 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Clements, 2004).

따라서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적, 이론적 근거 아래에서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가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최소 기준의 내용을 정선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조사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 6) 유치원/어린이집수준<sup>2)</sup> 교육과정의 자율성

국가교육과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수준 교육과정이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틀 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학교)의 실태를 반영하고 학부모와 유아들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재개발·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수준 교육과정은 교육의 효율성, 교육의 적합성,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교육의 다양성, 학습자(유아)중심 교육의 실현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김대현, 김석우에서 재인용, 2013).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은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 이래로 단위 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라고 적시해 왔다. 특히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성격에, 제 6차 유치원교육과정과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성격과 구성방침에 지역과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며, 교육청과 유치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임을 강조해왔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성격이 누락되면서 이러한 자율성의 강조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편성에서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고 제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 역시 제1차 표준보육과정 이래로 보육과정의 운영에 각 보육시설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위 유치원/어린이집수준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히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수준 교육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박창현 외, 2017). 이는 누리과정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주어진 것,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과 교사용 지도서를 누리과정 그 자체인 것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온전히 유아에게 전달해왔던 문제가 근본원인이라고 판단된다(이재창, 2018).

많은 유아교사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을 재구성의 관점이 아니라 충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 수준에서 학교수준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가 이전과 달리 CD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교사용지도서 활용 정도가 증대되었으며(이정옥, 박진이, 2014), 이정옥과 박진이(2013)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기존의 표준보육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어린이집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김윤희와 황해익(2015), 이정금과 임부연(201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공식문서로 보는 차원에서 벗어나 현장 교사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현장의 맥락과 개별 교사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재구성의 양상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많은 교사들이 교사용지도서, 또는 상업용 누리과정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정은 교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을 재구성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 고시문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단지 슬로건 형식으로 명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강현석 (2016). 한국 교육과정의 현실과 미래 과제. *교육과정연구*, 34(3), 69-101.
- 강현석, 이대일, 유제순, 이자현 (2006). 국가교육과정 대강화의 방향과 과제: 교육과정 체제의 개정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4(1), 221-251.
- 권옥자, 문무경, 김규수, 이연승, 임재택, 정미라, 지성애, 최민수, 장명림, 박명순, 이미정 (2010).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유아교육선진화

- 기반조성사업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김대현, 김석우 (201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김윤희, 황해익 (2015). 누리과정 이해와 실행에서 나타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9(4), 339-364.  
박순경 (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소통 가능성 탐색. **교  
육과정평가연구**, 15(3), 77-97.  
박창언 (2018). **현대교육과정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체제 분석**. 서울: 학지사.  
박창현, 양미선 (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  
식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1(1), 209-237.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육  
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5**.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  
과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보고 2017-18**. 육아정책연구소.  
윤은주 (2015). 민주주의 실현으로서 핀란드 교육과정개편이 주는 교훈: 누리과  
정 개편을 위한 논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73- 393.  
이경화 (2016). 3-5세 누리과정의 한계와 유아교육자의 과제. **생태유아교육연  
구**, 15(4), 1-23.  
이승미 (2015).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 방  
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533-551.  
이상주 (1974).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 **교육과정 연구의 과제**,  
59-74.  
이정금, 임부연 (2018). 교사의 상상력을 통한 유아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 관  
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8(1), 137-165.  
이정옥 (2017a). 만 3~5세 유아 학교,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을 제안한다. **월간  
교육**, 2017, 1월호, 44-50.  
이정옥 (2017b).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누리과정 운영  
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2017. 12. 21. 국회의원회관.  
이정옥, 박진이 (2013). 어린이집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6), 339-365.

- 이정옥, 박진이 (2014).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 교사용 지도서의 주제와 활동의 연계성 분석. *유아교육연구*, 34(6), 365-389.
- 이재창 (2018). 누리과정 구조적 개선을 위한 Schwab의 실제적 접근 및 Wiggins & McTighe의 교육과정 역행설계모형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 *유아교육연구*, 38(2), 129-155.
- 조부경, 김경은 (2017). 교육·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 *한국유아교육연구*, 19(3), 1-22.
- 최윤정 (2014). OECD의 최적의 학습 준거에 근거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교수·학습방법 분석. *육아지원연구*, 9(4), 29-55.
- Bredenkamp, S. (2004). Standards for preschool and kindergarten mathematics education. In D. H. Clements, J. Sarama & A. M. DiBiase (Eds.), *Engaging young children in mathematics: Standards for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pp. 77-82). London: LEA publishers.
- Clements, D. H. (2004). Major themes and recommendations. In D. H. Clements, J. Sarama & A. M. DiBiase (Eds.), *Engaging young children in mathematics: standards for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pp. 7-72). London: LEA publishers.